

1000조 넘긴 펀드시장의 그늘… 운용사 40%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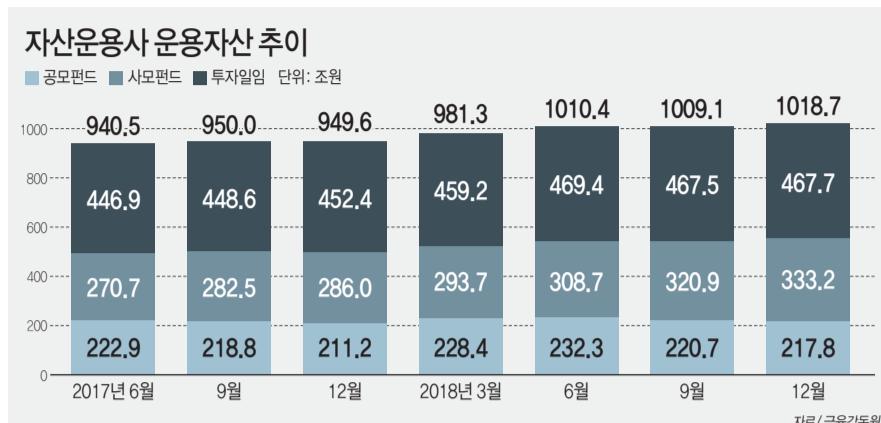
운용자산규모 1018조7000억
적자회사 비율 오히려 늘어나
수탁고·사모펀드, 두자릿수↑

자산운용사들이 운용자산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10곳 중 4곳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10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3% 증가했다.

펀드수탁고는 전년 말 대비 10.8% 늘어난 551조원이다.

사모펀드는 333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5%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가 각각 20% 이상 크게 늘었다.



공모펀드는 2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자산 종류별로는 주식·채권형이 늘고, 머니마켓펀드(MMF)에서는 돈이 빠져나갔다.

투자일임 계약고는 467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4% 증가했다.

운용규모는 늘었지만 수익성은 나빠지고, 적자회사도 더 늘었다.

지난해 243개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6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146개사가 흑자, 97개사는 적자를 기록

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39.9%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169개사 중 절반에 달하는 80개사가 적자를 냈다.

수익성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2%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지난해 수수료수익은 2조 4575억원으로 펀드 수탁고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4.2% 늘었다.

특히 펀드 관련 수수료수익이 1조9407억원으로 19.4% 증가했다. 반면 일자리수수료는 5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을 운용해 얻은 증권투자손익(파생상품 포함)은 268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주식시장이 급격한

악화되면서 전년 대비 71.3%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사모운용사의 신규 진입이 지속되고 운용자산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양적인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사모운용사의 적자비율이 여전히 높고 일부 자산운용사는 고유재산 운용시 예기치 못한 시장악화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자산운용사 및 펀드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자산운용사는 총 243개사로 전년 대비 28개사가 늘었다. 인가 반납으로 종합자산운용사가 한 곳이 줄었지만 전문사모운용사가 29개사가 늘었다. 임직원수는 8223명으로 지난 2015년 10월 진입 규제를 완화한 이후 약 3118명이 증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SK건설, 4억달러 UAE 횡단 철도공사 수주

건설사 첫 GCC 회원국 프로젝트 참여
구웨이파트~루와이스 구간 계약 체결

SK건설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사막을 횡단하는 대형 철도공사를 수주했다.

SK건설은 UAE의 에티하드 레일(Etihad Rail)이 발주한 2단계 철도망 건설 사업 중 구웨이파트(Ghuweifat)~루와이스(Ruwais) 구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사우디, 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철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SK건설은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 E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수주했다. 총 공사금액은 4억2000만 달러(약 4800억원)로 SK건설 지분은 42.5%다. SK건설은 EPC(설계·조달·시공)를 일괄 수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46개월이며, 2023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경과 인접한 UAE 서부 구웨이파트(Ghuweifat)에서 루와이스(Ruwais)까지 총 연장 139km의 철도노선을 신설하는 공사다. 에티하드 레일 2단계 철도망 중 첫 번째 구간인 만큼 향후 발주되는 세 개의 구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SK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에티하드 레일 2단계 철도망은 총 연장이 605km이고 최고 속도는 200km/h에 달한다. 서쪽 사우디 국경인 구웨이파트로부터 동쪽 후자이라(Fujairah)까지 UAE 전역에 걸쳐 연결된다.



SK건설은 13일 UAE의 에티하드 레일이 발주한 2단계 철도망 건설사업 중 구웨이파트~루와이스 구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남현태 SK건설 상무, 사디 말라크 에티하드 레일 대표이사, 유 태오 중국건축공정총공사 중동 대표이사, 뒷줄 가운데 테아브 빈 모하메드 빙 사이드 알 나흐얀 에티하드 레일 이사회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철도가 준공되면 UAE의 주요 도시, 항만, 산업단지간의 화물 운송 및 물류 시스템이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단계별 개발계획을 통해 여객용 터미널까지 확장되면 지역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산업교류를 촉진해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이 사업은 UAE가 지난 2012년에 발표한 그린이코노미 전략(Green Growth Strategy)에 포함된 대표적인 친환경 프로젝트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심 교통문제 완화, 도로보수 비용절감 등 경제적 실익이 크다고 SK건설은 보고 있다.

화물열차 1대는 기존 덤프트럭 300대 규모의 수송량을 확보하며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기존 차량대비 70~80% 줄여, 예상교통량 기준 연간 2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37만7천대의 차량을 대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SK건설은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중국 국영 건설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사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등 양사 간 시너지를 발휘해 이번 수주에 성공했다.

수주를 계기로 UAE 에티하드 철도의 기타 노선과 아부다비 지하철 등에서도 추가 사업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SK건설은 UAE 알 만도스 원유비축기지, 카타르 도하 지하철 레드라인, 쿠웨이트 알 주르 항만 등 중동지역 내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UAE 에티하드 철도가 국가균형발전과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중동 내 공사 수행경험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추가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창립 30주년’ 호반그룹, 신규 CI·BI 공개

HOBAN

“새로운 CI, 짚고 역동적 의지 담아”

창립 30주년을 맞은 호반그룹이 통합 CI(기업 이미지)와 건설계열 주택브랜드 이미지(BI) ‘호반써밋’, ‘베르디움’의 새로운 디자인을 13일 공개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새로운 CI에는 소비자의 생활과 공간을 풍요롭게 할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짚고 역

동적인 의지를 담았다”며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반써밋’, ‘베르디움’ 브랜드 단지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의 새로운 CI는 호반의 심볼 마크인 블록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블록형태 안에 있던 호반을 밖으로 꺼내 심플하게 바꿨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기존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창립 30주년 기념 엠블럼은 호반그룹이 지나온 30년의 과정을 형상화 했다. 숫자 ‘30’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호반의 견고하게 쌓아온 30년의 업적을 상징하는 동시에 앞으로 성장해 나갈 호반의 미래를 의미한다. 이번 30주년 엠블럼은 각종 광고, 홈페이지, 사인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된다.

/채신화 기자

신용대출 증가… 가계대출 2.5조 늘어

한은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
증가 규모 1월보다 2배 이상 확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둔화됐으나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월 중 금융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831조2000억원 전월보다 2조 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 1월(1조100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같았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었다.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217조원으로 증가액은 1000억원에 그쳤지만 1조5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면서 증가액이 전월(7조6000억원)보다 대폭 줄었다.

/김희주 기자 hjs98@

〈가계대출〉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2월말 잔액	
	연중	2월	연중	2월	12월	연중	1월	2월
• 은행 가계대출 ¹⁾	58.9	2.9	60.8	2.5	5.4	3.6	1.1	2.5
(주택담보대출) ²⁾	37.2	2.1	37.8	1.8	4.9	5.0	2.7	2.4
(기타대출) ⁴⁾	21.6	0.8	22.6	0.7	0.5	-1.4	-1.5	0.1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종별 대출은 신탁 제외.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포함. 3) 주택관련대출 포함. 4)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자료=한국은행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급증

1만여건 달해… 전년比 32% 늘어

지난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이 1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실거래 신고 위반 사항 총 95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7년 7263건, 1만2757명과 비교하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 이 219건(357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 공인

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편법증여(가족 간 거래), 탈세 의심양도세 탈루)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 건은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20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

/채신화 기자